

## 부산시, 2025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 전담조직 신설해 스포츠 외교 강화

오는 12월 1일~5일 벅스코서 열려 191개국 2000여명 인사 참석 예정 총회추진팀, 기획·홍보 등 진행 부산 역사·문화 알리기 행사 모색

부산시는 올해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5 부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담 조직인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추진팀'(이하 총회추진팀)을 신설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총회추진팀은 지난 1일자로 신설됐으며, 앞으로 총회 전반에 대한 기획·사전 홍보 행사·유산(Legacy)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글로벌 도핑방지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회의로, 6년 주기로 개최된다. 금년에는 12월1~5일 해운대구 벅스코(BEXSCO)에서 열리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국제패럴림픽(IPC)위원·국제경기연맹대표·각국 스포츠 장관 등 191개국 2000여 명의 인

사가 참석한다.

총회는 도핑 방지와 관련된 전 세계 관계자가 모여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국제표준 제·개정, 세계도핑방지기구의 5개년 전략 등에 대해 다루며, 도핑방지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국제경기대회 유치 등에 필요한 스포츠 외교력을 더욱 강화하고, 올해 다양한 형태의 '붐업(Boom-up)' 행사를 기획해 총회 성공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회 기간 참가자들이 부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와 체험행사 등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총회는 2022년 5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에서 경쟁국 도시들을 압도적인 득표로 제치고 부산시가 최종 선정됐으며, 시는 이번 총회의 홍보를

위해 지난 2년 전부터 매년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학술(그림 공모전)과 교육(토크 콘서트), 참여(가족 마라톤 바다런) 등 3가지 프로그램에 33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고, 지난해에는 바다런 마라톤 행사를 개최해 전년 대비 다채로운 코스와 행사로 총 35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김아람(쇼트트랙), 기보배(양궁), 김동현(복슬레이)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선수위원 등이 대거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글로벌 스포츠 미래 설계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이번 총회의 부산 개최로 국제스포츠 도시, 국제외교의 장으로서 부산의 위상을 높이며, 도핑방지 인식 제고와 함께 공정 스포츠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AI교과서 활용 여부, 학교서 각자 결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내달 초쯤 안정되면 선택하길 바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여부는 관내 학교가 각자 결정해 추진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된 가운데, 관내 학교가 이를 자료로 활용할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최근 관내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와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률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과서나 교육 자료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률적 지위를 둘러싸고 국회와 교육부가 오랫동안 이견을 보여오다가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라며 "이에 따라 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학교가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내 학교가 이를 자료로 활용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5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할지 여부는 내달 초를 지나 결정해 달라고 독려했다는 게 정 교육감 설명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아직 교육계 안팎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니, 2월 초쯤 어느 정도(정치적 등으로) 안정이 되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법률로 교육자료로 격하됐음에도 대구 관내 학교는 이를 교과서로 활용을 강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중장년 일자리 지원

교육·훈련 대상자 1.6만명으로 늘려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확대 운영 3월·9월 '중장년 고용 생태계 포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재단은 더 많은 중장년 세대가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권역별 채용 박람회를 연 5회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기업으로 찾아가는 현장 경험형 채용 설명회를 신설하고, 직무 체험과 현장 면접을 결합해 운영한다. 기존 인턴십 사업을 개선해 '경력 인재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직업 전환을 고민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700여명이었던 교육·훈련 대상자를 금년 약 1만6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기업과 구직자가 만나는 기회의 장인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도 확



지난해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운영 모습.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 운영한다. 올해는 행사 기간을 이틀로 늘려 1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단은 올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중장년 고용 생태계 포럼을 연다. 기업과 전문가들이 중장년층 고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이번 포럼을 통해 재단은 4060세대가 일하고 싶은 미래를 현실화하고, 서울시 중장년 정책

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문을 연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는 기존의 공공 일자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학력과 경력, 전문성을 반영한 신노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맞춤형 취업 훈련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누구나 일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

## 고양시민 89% "경제자유구역 유치 필요"

긍정적 영향·변화 기대감 매우 높아 주요사업, 바이오 정밀의료 등 꼽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가 확인됐다. 최근 고양시가 지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 89.0%가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 시민들의 66.2%가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 92.4%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5.0%의 시민이 지정 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냈다.

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할 주요 사업으로는 바이오 정밀의

료(29.9%), 케이(K)-컬처(27.6%), 스마트 모빌리티 및 도심항공(21.6%), 전 시컨벤션 및 마이스 산업(15.4%) 등이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고양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와 케이(K)-컬처관광 등 복합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북부 거점도시로서의 발전(28.0%), 첨단산업 융합도시로의 발전(24.5%), 국제적 수준의 첨단산업을 갖춘 도시(12.7%) 등의 의견이 나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시범 운영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맞손'

서울시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손잡고 이번에 출시한 미니보험은 특정 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소액 단기 보험이다.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골절(치아 파절 제외) 진단비 10만원 ▲갑수(부목 제외) 치료비 10만원 ▲강력 범죄 피해 상해 위로금 최대 200만원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 완료한 자로, 별도의 부담 금액은 없다. 이달 8일 오전 0시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할 때 관련 팝업창이 뜨면, 직접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 내역에 포함된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진단금과 위로비 등을 지급한다.

시는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상대로 미니보험을 시범 운영하고, 가입 추이와 효용성을 검토해 실물·후불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영덕군,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경북 1위'

총 11억 700만원 모금 '성과' 주민 홍보지원단 운영 등 추진

영덕군이 경북 도내 지자체 중에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을 11억 700만원 모금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나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복지사업과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물론 지역을 홍보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모금을 위한 전략적인 활동과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이는 ▲5개 사회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주민 홍보지원단' 운영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전국 향우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기부 참여와 저변 확대 ▲경북 최초 민간 플랫폼(위기브) 도입으로 기부 경로 다각화와 편의성 제고 ▲엄선된 고품질 답례품 선정 및 관리 등의 성공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작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분석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부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기부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고향을 사랑하는 기부자의 마음과 정성이 지역 행복과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